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4. 6. Vol. 14

■ 농정이슈

한·베트남 FTA 가서명 등

■ 정책브리핑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 연구지원

2014 양곡연도 차급률 현황

■ 현장여론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와 개선점

☞ 농정이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한·베트남 FTA 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가서명, 3.28., 서울] 수석대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 한-베트남 FTA 가서명
 - ※ 한-아세안 FTA 바탕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 (한국측) 이미 對베 수입의 91.7% 양허 → 94.7%, (베트남) 이미 對한 수입의 86.3%(수입액 기준) 양허 → 92.4% 자유화율
 - (한국 시장개방)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 無
 - ※ (10년 철폐)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마늘(건조/냉동)·생강(미분쇄·미파쇄(건조/기타), 파쇄·분쇄(신선·냉장/건조/기타))·돼지고기(삼겹살/기타(냉동)), (15년 철폐) 천연꿀·팥·고구마전분
 - (향후 일정) 한-베트남 FTA 국문 번역본 국민의견 접수(4.2~21.), 2015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 거쳐 조속한 협정 발효 노력 합의
- 자료 : KBS(2015.3.29.) / YTN(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비즈·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3.30.) / 농민신문(2015.4.1.) / 연합뉴스(2015.4.3.)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2015.3.30.), 「한-베트남 FTA 국문 번역본 국민의견 접수」(2015.4.2.)

☐ TPP 주요 동향

- [TPP 타결 임박...한국 TPP 준비 가장 잘된 국가] 찰스 리프킨 미 국무부 경제산업 담당 차관보 방한 중(3.29~4.2.) 언급(4.1.), △TPP 타결 임박, 한국은 교섭 마무리 후 논의 시작될 것, △한국은 자연스러운 가입후보국이며, 경제효과와 가치 높이에 꼭 필요
- 자료 : 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인포맥스·헤럴드경제(2015.4.2.)
- [일본,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직접 설득 촉구] TPP 교섭대표인 아키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3.30.)에서, △TPP 체결 위한 TPA 확보 위해 민주당 의원 직접 설득 촉구, △실시간 제약들을 맞고 있지만 타결가능성 여전히 높고 낙관적, 최상의 시나리오는 5월 타결
- 자료 : 연합뉴스·조선비즈(2015.3.31.)
- [TPP 꼭 가입해야, 87%] 전현직 한국국제통상학회장* 'TPP에 한국 반드시 가입 해야'(13명) 응답, 가입 시기는 '미국과 일본 타결 선언된 직후'(7명)
- ※ 한국경제신문이 김완순 전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의 역대 국제통상학회장단에 '미국과 중국 G2시대의 한국 통상정책'에 대한 설문조사(3.29.) 결과
- 자료 : 한국경제(2015.3.30.)

㉔ 농정이슈

□ 박대통령, 농축수산물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 **[박대통령, 오찬간담회 개최* 결과, 3.27.]** 대통령 말씀** 요지, △할랄·중국 등 거대 시장을 겨냥한 농수산물 수출확대,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업과 농수산업계 간 상생협력 본격 확대
 - ※ 농축수산물단체장과 대한상의, 농업계와 상생협력 추진 중인 기업계 등 관계자들 참석
 - ※ ※ 농수산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세계 식품시장이 ICT시장보다도 크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응하면 반드시 세계를 선도하는 농수산업 강국 구축, 관계부처, 의견 적극 검토, 빠른 시일 내 정책으로 연결
- 자료 : KBS·SBS·YTN(2015.3.27.) / news1·데일리안·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3.28.) / 농수축산신문(2015.3.31.) / 농민신문(2015.4.1.) / 한국농어민신문(2015.4.3.)
- 참고 : 청와대 뉴스_「대통령, 농축수산물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 결과」(2015.3.27.)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미국 USTR,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4.1.]** 한·미 FTA는 관세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적권 보호 강화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위생 및 검역조치: SPS)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30개월령 미만) 이행 원만, 농업 생명공학 규제 예측성·투명성 결여, 미국산 가금류 수출금지 조치 이의제기, 농약 잔류최대 허용기준 등에 대한 미국측 입장 및 우려 기술
 - (수입정책)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과 현안 해결 긍정적 평가,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및 쌀 관세화와 관련된 진행상황 기술
- 자료 : SBS·YTN(2015.4.2.) / 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연합뉴스·조선비즈(2015.4.3.)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2015.4.2.)

□ 쌀 관세율 검증 관망세

- **[한국 쌀관세율 513% 이의 제기한 5개국(미국·중국 등)과의 관세율 검증논의 시작 지연]** WTO 농업위원회가 6월은 폐야 열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세 지속 전망
 - ※ 농식품부 관계자, “의무수입물량(TRQ) 40만9천t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의제기국들의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4.1.)
 - (긍정신호 VS TPP 연계전략) 이의 제기 국가들의 관망은 긍정 신호 ↔ TPP와 연계해 압박 강화할 가능성, 농식품부 관계자, “쌀 관세화검증과 TPP는 별개”라는 입장
- 자료 : 내일신문·연합뉴스(2015.4.1.)

㉔ 농정이슈

□ 정부, 저소득 1인 가구에 소포장 쌀 20kg → 10kg 공급

- **[농식품부·보건복지부, 나라미 지급* 방식 개선, 4.1~]**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로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1인 가구에 (현행) **격월 7, 8월 제외**하고는 **20kg → (개선) 매월 10kg 포장 공급**
 - ※ 보건복지부…지원 대상에 나라미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
 - ※ 농 식 품 부 …정부 양곡을 가공해 복지부에 나라미 공급
- 자료 : SBS(2015.3.30.) / 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2015.3.31.)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업신문(2015.4.3.)
- 참고 : 농식품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_「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1인 가구에 10kg 나라미 상시 공급 -」(2015.3.31.)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31.]** 4월 초부터 시행되어 2015년 직불금 신청 중인 농업인에게 적용되나,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 사업특성 고려해 소득요건 적용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직불제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연계,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 대상자 연령요건 완화*, △농업의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원 이상인 경우 조건 불리지불과 경관보전직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전업농) 60 → 64세 이하, (일반농) 45 → 50세 이하
 - ※ ※ (현행) 쌀소득보전, 밭농업 → (개정) 조건불리, 경관보전 추가
- 자료 : 내일신문·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데일리·헤럴드경제(2015.3.31.)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4.3.) / 농촌여성신문(2015.4.6.)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직불제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연계,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연령요건 완화 등 -」(2015.3.31.)

□ 2015년 마을기업 320개 지정…소득·일자리 창출

- **[행정자치부, 2015년도 마을기업* 320개 지정, 4.1.]** 신규 지정 마을기업 140개, 2차년도 재지정 180개,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1,400여개 이를 것으로 예상
 - ※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소득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마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법인 구성하고 마을기업 설립 위한 사전교육 이수하면 해당 시·군·구에 마을기업 설립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신규 지정 5,000만 원, 재지정 3,0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총 8천만 원**, △마을기업 적극 홍보하고 판로 확대 지원…경영컨설팅 제공, 전국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 자료 : KBS·YTN(2015.4.1.) / 국민일보·news1·NEWSis·머니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5.4.2.)
- 참고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_「행정자치부, 2015년 마을기업 320개 지정 - 행자부,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발굴·육성해 창조경제 확산 위해 노력할 것」(2015.4.2.)

금산 인삼농업·하동 전통 차농업·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5호 「금산 인삼농업」,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농업유산의 보존·활용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에 필요한 예산(지역 당 3년간 15억 원, 총사업비 기준) 지원

※ (2013년)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제2호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 (2014년)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밭'

- (금산 인삼농업) 인삼 재배가공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논 재배기술과 가공기술 발달, 전통시장 개설되는 등 인삼유통 가장 발달

- (하동 전통 차농업) 지리산 산비탈에 차밭 조성, 가내수공업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공해 다양한 제품과 지역문화 형성, 우수한 경관

자료 : KBS-YTN(2015.3.29.) / NEWSis-문화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3.30.) / 국민일보-news1-한국일보(2015.3.31.) / 한국농어민신문(2015.4.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2015.3.30.)

구제역 및 AI 발생 주요 동향

- [구제역 발생 동향, 4.1. 현재] △총 174건, △살처분: 181개 농장 165,694마리, 기존 발생 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일부 새로운 지역* 단발성 발생

※ 최근 인천 강화(3.23/3.26.), 충남 당진(3.27.), 경기 수원(3.15.) 등

-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결과, 4.1.) △백신 접종 증명 시 과태료 미부과, △구제역 발생농장 의심 증상 없는 돼지 도축 출하 허용, △현재 수입 중인 O3039가 추가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O3039) 공급, △이동제한 지역 내 농장 가축 이동 등

- (신형백신 접종해도 구제역 발생)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 자료 근거해 3.21. 기준 신형백신 접종한 농가 749곳 중 26곳 구제역 발생, 백신 효과 불신

- [AI 발생 동향, 3.31. 현재] △총 753건(양성 163, 음성 583, 검사 중 7), △살처분: 171농장 4,096천 수

자료 : KBS-SBS-news1(2015.3.30.) / MBC-YTN-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3.31.) / KBS-국민일보-내일신문-농민신문-news1-매일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연합뉴스(2015.4.1.) / MBC-YTN-동아일보-연합뉴스(2015.4.2.) / 농민신문-news1-NEWSis-아시아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4.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 구제역 백신주 선정 및 발생농장 방역관리 개선 등 -」(2015.4.2.), 농식품부 자료_「AI 방역추진상황(04.01.)」(2015.4.1.)

정책브리핑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4.1.)

개요

- [농식품부, 향후 10년간(2024년)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4.1.]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에 기여하고자 5대 핵심과제 마련, 올해 4월을 “도시농업 봄 조성의 달”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 추진
- (추진 방향) 2013년에 수립추진 중인 『제1차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2013-2017)』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면서 △도시농업 외연 확대, 인프라 확충하여 도시민들 참여 장려, ii) 도시농업과 일반농업 조화롭게 발전

분야	현재(2015)	미래(2024)
범위	(개념) 농작물 경작재배 (공간) 도시지역	⇒ + 힐링치유, 양봉·곤충·소동물·수목 + 관리지역
정책목표	도시농업 육성	⇒ + 도농상생 틀 구축 + 일반농업 발전 뒷받침
정책대상	도시민	⇒ + 일반농업인 + 환경
정책범위	도시농업활동	⇒ + 건축·건강교육 등과 접목, 새로운 서비스 창출
참여자면적	108만 명, 668ha	⇒ + 480만 명, 3,000ha

주요 내용

- [1. 도시농업 확산 위한 제도 기반 정비] (개념적 측면) 양봉·곤충·소동물·수목 등 다양화, 경작재배뿐만 아니라 벽면녹화, 원예치료, 힐링치유 포함, (공간적 측면) 관리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령 개정, 도시농업법 개정 통한 외연 확대
- [2.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 실천 공간 확충, 문화예술과 융합, 전국 네트워크 구축
- [3. 교육·전문인력양성 및 홍보 강화] 교육·인력양성기관 확대, 자체 도시농업의 날 제정(4.11.), 캐리타애플럼 제작
- [4. 도시농업 통해 농업·농촌 지원하는 사업 발굴 시행] 도농협력사업 발굴, 농업인 단체와 도시농업단체 간 상생협약(MOU) 뒷받침
- [5. 도시농업 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생활밀착형 R&D 추진] R&D 확대 추진, 타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뒷받침

▣ 정책브리핑

▮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른 도농상생 기대효과 ▮

구분	주요 내용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취미여가학습체험 활동 통해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효과 - 농사체험으로 숨 쉬는 녹색도시, 행복한 이웃, 건강한 공동체 형성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 농사체험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로 연계 - 농산물 과잉생산, 소비위축 시 “도시농업단체”와 소비촉진 운동 전개
학교텃밭(school farm) 운영으로 식생활 개선	- 미래세대에게 농업의 가치 확산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기회 제공(2014: 3,588개소) ※ 학교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한 24%의 학생이 참여 전에는 먹지 않는 채소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그중 66%가 먹게 되었다고 응답(RDA, 2013, 스쿨팜 보고서)
농산물 직거래의 전초기지 역할	주말농장 등 도시텃밭 공동체와 귀농·귀촌자간 직거래를 시작으로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확산
귀농·귀촌 선행학습의 장 제공	주말농장, 옥상텃밭 체험이 도시민을 귀농·귀촌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여 농촌에 활력 부여
농업투자자에 대한 인식개선	-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으로 농업투자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대 필요 ※ 도시민의 50.9%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찬성(KREI, 2014)
생산에서 유통·치유 위주로 전환, 일반농업과 결합 해소	(농가직영) 연간 3~4회 경작 → (주말농장) 봄가을 2회 분양 - 일반농업과의 이해상충 해소 위해 꽃허브 작물 위주로 재배 유도

관련 연구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2012), 김태곤 외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확산과 도농상생 방안(2014), 김태곤 외
-------	--

2015 양곡연도 자급률 제고 대책

□ 개요

- **[농식품부, 답리작 활성화 등 자급률 제고* 대책 지속 추진]** 자급률 낮아 생산 확대 여력이 많은 쌀 식량작물 위주로 자급률 제고방안 추진, 답리작 면적을 20% 이상 확대할 경우 6~7천억 원의 농가소득 증가
 - ※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57%, △곡물자급률 목표치: 30%
- **(기본 방향)**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 확대는 수급 불안 및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산기반 확충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 촉진 병행

▣ 정책브리핑

□ 주요 내용

- **[쌀 식량·사료작물]**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 등은 **주산지 중심 공동경영체 육성, 발농업 기계화, 답리작 활성화, 농식품 기업과 연계한 신수요 창출** 통해 생산과 소비 동시 확대
 - 이모작작불금 인상(40 → 50만 원/ha, 2015), 이모작에 대해 단기 임대차 허용 하도록 농지법 개정(2015.1), 국산 콩 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 제외(2015.2.)
 - 봄 파종 적극 추진해 약 5천ha 추가 파종(2015.초), 현재 답리작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마련 위해 T/F 구성*·운영 중
 -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자급률제고사업단
- **연구개발(R&D), 소비 촉진 적극 추진**
 - **(답리작 활성화)**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맥류시험단지 육성(14개소),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통한 품질 관리 강화, △답리작 실시 들녘경영체에 답리작 관련 시설·장비 지원, △답리작 작부체계별 생산매뉴얼 보급, △가공적성이 개선된 밀과 맥주용 보리 품종 개발, △국산 밀 제품을 판매하는 생협(icoop 등), 기업(SPC 등)과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 확대해 품질 제고, 국산 콩 가공식품기업과의 연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등 통해 수요 확대
 - ※ 콩 유통종합처리장: (2014) 2 → (2015) 3 → (2024) 12개소
 - **(조사료)**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확대(18천ha→23), 조사료 품질평가제 도입* 통해 사료용 곡물 수요 대체
 - ※ 조사료 품질평가제: (2015) 시범사업 → (2016) 본사업
- **[쌀]** 자급률 높은 쌀은 수급안정 중심으로 추진하되, 규모화 된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품질 제고, 생산비 절감, 특히,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소비촉진 홍보, 수출 확대 통해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
 - **(들녘경영체)** 2015년부터 시설·장비 지원 확대, 진입요건 완화,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 확대(50 → 400ha)
 -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 활성화 사업 확대)** 2014: 40 → 2015: 60억 원,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반영
 -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상품개발, 물류, 마케팅, 원료확보 지원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3.30.)

연구지원 2014 양곡연도 자급률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3.30.)

□ 개요

- **[자급률 현황]** 2014 양곡연도(2013.11.~2014.10.) 식량곡물자급률 전년대비 상승, △식량자급률...2011년 이후 지속 상승, △곡물자급률...2009년 이후 계속 하락, 2014년 처음 상승
- **(상승 요인)** 양호한 기상여건, 전년대비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쌀, 보리, 콩 등의 생산량 증가

■ 양곡연도별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현황

단위: %

식량자급률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10	54.1	104.6	26.3	1.7	3.8	32.4	109.4	10.6
2011	45.2	83.1	23.5	1.9	3.6	26.1	107.3	9.7
2012	45.7	86.6	17.3	1.7	3.4	30.8	105.9	11.1
2013	47.5	89.2	20.5	0.9	4.5	29.6	106.5	12.3
2014(잠정)	49.8	95.7	26.0	1.1	4.2	35.9	106.3	13.0
곡물자급률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10	27.6	104.6	25.1	0.9	0.9	10.1	98.7	9.7
2011	24.3	83.1	22.5	1.0	0.9	8.0	96.9	8.7
2012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2013	23.3	89.2	19.3	0.4	1.0	9.7	96.3	11.1
2014(잠정)	24.0	95.7	24.8	0.7	0.8	11.3	96.1	11.3

주: (식량자급률)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곡물자급률) 사료용 소비를 포함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 주요 내용

- **[식량자급률(잠정*)] 49.8%**, 전년(47.5%)대비 2.3%p ↑
※ 종자용 소비량 추정에 2015년 재배면적 등의 자료가 필요하여 향후 미세 조정 가능
- **[곡물자급률*(잠정)] 24.0%**, 전년(23.3%p)대비 0.7%p ↑
- **[국내 곡물 총 생산량] 4,830천 톤**, 전년(4,578천 톤)대비 5.5% ↑

- **(쌀)** 재배면적 전년대비 감소(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5.6%↑)
- **(보리)** 최근 가격 호조로 재배면적(15.4%↑)과 생산량(46.7%↑) 전년대비 증가
※ 농협 보리 수매가격(쌀보리, 1등급 기준): (2012) 27 → (2013) 34 → (2013) 43천 원
- **(콩)** 재배면적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2%↓)이나, 기상여건 좋아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25.2%↑)
- **(기타)** 밀 생산량 전년대비 5천 톤↑, 옥수수서류(감자, 고구마)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3천 톤↓, 36천 톤↓

■ 양곡연도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

단위: 천 톤, 천 ha

구 분	생산량						재배면적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서류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서류
2013	4,006	60	19	83	123	255	849	26	7	17	81	51
2014	4,230	88	24	80	154	219	833	30	7	16	80	43

- **[총 곡물 소비량] 20,090천 톤**, 전년대비 2.4% ↑
- **(식량용 소비량) 4,808천 톤**, 전년대비 약 1%(51천 톤) ↓
※ 가정, 학교, 식당 등에서의 밥쌀, 밀가루 소비
- **(가공용 소비량) 4,319천 톤**, 전년대비 1.7%(72천 톤) ↑*
※ 가공식품 및 육류 소비 증가** 등 식생활 변화 기인
※※ 1인당 육류 소비량: (2000) 31.9 → (2005) 32.1 → (2010) 38.8 → (2014p) 44.0kg
- **(사료용 소비량) 10,381천 톤**, 전년대비 3.9%(394천 톤) ↑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개요

- **[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4.1]**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 건강기능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 활동 실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조사, 조사 결과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 (조사기간 및 기관) 2014.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및 방법) 전국 975개 조사구의 거주노인(65세 이상) 10,452명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 **[일반 특성]** 도시 거주 노인(2004: 67.9 → 2014: 76.6%), 80세 이상 노인(16.2 → 20.6),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자(25 → 37.6) 노인 비중 증가
- **[가구 형태]** 독거노인 가구*(2004: 20.6 → 2014: 23.0%) 증가
 - ※ 단독거주(독거+부부) 이유: 자녀의 결혼(32.7%) >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20.6%) > 개인생활 향유(15.5%) 순
- **[노인 가구소득*]** 노인이 있는 가구의 총 가구소득 2,303만 원
 - ※ 근로소득(37.4%), 공적 이전소득(22.6%), 사업소득(15.5%), 사적이전소득(15.1%)
- **[노인가구 소비지출*]** 월평균 143.9만 원, 도시·남자노인 지출 많아
 - ※ 부담 느끼는 지출항목: 주거관련 지출(40.5%) > 보건 의료비(23.1%) > 식비(16.2%) > 경조사비(15.2%) 순
- **[만성질환]** 89.2%*, 평균 2.6개 만성질환 보유
 - ※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 고혈압(56.7%) > 관절염(33.4%) > 당뇨병(22.6%) 순
- **[경제활동 참여]** 28.9%*, 생활비 보충(79.3%), 용돈마련(8.6%) 위해 단순노무직(36.6%), **농림축산어업(36.4%)** 등에 종사
 - ※ **농림어업 38.3%**, 경비·수위·청소 19.3%, 운송·건설관련 10.8%
- **[여가]** TV시청(82.4%) > 여행경험률(29.7%) > 학습활동 참가율(13.7%) 순
- **[안전사고 등 경험]** 낙상 경험(25.1%), 화재·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경험(3.0%), 78.8%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
- **[시설·서비스 이용률]** 복지관(6.6%) > 복지관의 경로식당(5.1%) > 공공 여가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등, 4.5%) > 식사(밀반찬)배달 서비스(1.5%) 순
- **[삶의 만족도]** 자녀(69.8%) > 배우자(68.7%) > 친구·지역사회(54.2%) > 사회·여가문화활동(34.8%) > 건강(29.5%) > 경제상태(15.2%) 순
- **[노인 연령 기준]** 70세 이상(78.3%), 75세 이상*(31.6%)
 - ※ 2011년 대비 7%p↑
- **[노후생활비 마련]** 본인과 국가가 준비(34.3%) > 본인 스스로(31.9%) > 국가적 차원(18.6%)

자료 : 보건복지부(2015.4.1.)

현장여론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와 개선점

자료: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3. 1. ~ 3. 31.(총 26건)
- 수집대상: KRE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와 개선점

- 서천군은 먼 소재지 이동 시 100원의 요금을 내고 읍 소재지 이동 시 1인 버스 요금만을 지불하면 되는 일명 **100원 택시라 불리는 '희망택시'를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농어촌 오지마을에만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농촌 주민의 이동 편의 개선과 교통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람.<김영근, 충남 서천>
- 용인시는 충북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노동 등으로 힘든 여성농업인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문화적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부터는 신청 나이제한이 만35세 미만으로 낮춰져 좀 더 넓은 연령층에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했으나, 선정조건에 연장자 우대 항목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점을 주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14년 선정된 사람이 올해에는 제한된다는 조항이 없어 만65세 이상 농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지속되어 젊은 여성농업인은 혜택 받기 어려운 상황임. 육아 및 가사,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생색내기 보다는 선정 기준부터 충분히 검토 후에 개선되어야 할 것임.<김경태, 경기 용인>

☞ KRE리포터 현장여론

- 홍천군 우리 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장수마을로 선정하여 연 150만 원 보조금을 받아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에서는 군 보조금을 받아 노인정을 운영함. 운동시설 설치되고 노래교실 운영, 배식서비스 제공 등 생활 여건이 많이 나아졌으나, **실제 운영비에서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가구당 월 일정액을 부담하는데 이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있음. 복지지원 혜택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함.<변해동, 강원 홍천>
- 부여군에서는 마을단위로 보건소 순회 진료를 제공해 주고 주민복지센터에서 서예, 풍물놀이,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육아돌보미 서비스, 근처 약국 또는 문화 시설 설치 등이 마련되었으면 함.<최영호, 충남 부여>
- 합천군은 노령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 대상 언어교육이 많고, 반찬 나눔과 입욕봉사가 활발함. 의료·배식·입욕 등 기초 복지에 대한 봉사가 늘어 만족스러운 편임.<조경연, 경남 합천 외 1>
- 3월 서평택지역의 읍면에 차량버스이동진료를 실시하였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바쁜 농번기철 짧은 시간 내 간단한 검사로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니 주민 모두가 의료복지서비스에 만족함.<연규석, 경기 평택>
- 화순군 우리 마을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목욕탕을 가끔 이용하고 있으며, 몸이 아플 땐 치료를 위해 인근 곡성군까지 나가서 치료를 받는 실정임. **보건·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람.<나종주, 전남 화순>
- 복지회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한 푼이라도 돈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임. 복지조차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음. **즐기는 프로그램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봉사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 농촌지역은 사전계획이나 별도의 조사 없이 재산 또는 생활수준이 충분한 사람 에게도 복지혜택을 주고 있음. 복지회관에 모여 있으면 난방도 되고 밥도 제공 해주고 있으니 사실상 ‘복지’ 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지나친 지원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이 늘어가는 격임. 무작정의 복지는 정부가 나서서 다 해주기를 바라며 ‘**일하지 않아도 잘 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소일거리를 제공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재 복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외 1>

☞ KRE리포터 현장여론

- 주민행복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직접 와 닿는 복지서비스는 미미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지역 내 물인적 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지역특성 등 파악하여 복지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임.<임영애, 제주 제주>
- 고령의 노인 대부분이 마을회관에서 많은 동무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놀이를 즐기며 음식을 나누고 있음. 자식들도 부모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으니 좋아하고 치매 예방 등 노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개인에게 주는 복지보다 **마을회관 차원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확대 되길** 바람.<김현자, 경남 밀양 외 2>
- 농촌에는 주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많음. 마을회관에서 식사 지원, 쉼터 역할을 하며, 보건소 물리치료·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함. **마을회관과 보건소 등의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배병열, 전남 무안>
- 복지회관에서 수영, 컴퓨터, 요리 강습 등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찾아오기 어렵고 보건소의 방문검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장수마을에만 지원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다른 마을이 소외받기도 함. **마을별로 복지서비스 기관을 확대 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수단 마련을 통해 모두가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람.<전연수, 경남 의령>
- 정부에서 무상복지가 늘어나 이전보다는 살만해졌지만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는 독거노인은 여전히 많은 실정임.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검진절차가 많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수고스러움을 겪다보니 이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마을별로 집안사정을 잘 아는 **이장을 포함한 동리 개발위원회에서 독거노인의 복지관련 신청 권한을 갖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유영순, 충남 서산>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빌린 농지자금 상환과 영농 경영비 등의 지출로 매년 부채에 허덕 이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를 소유해 농사짓는 재산상의 이유로 경로연금을 받지 못 하고 있음. **경로연금 지급 조건이 융통성 있게 개선되길** 바람.<정태근, 경북 구미>
- 고령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보호자 등 **거택보호대상자**는 정부대기업으로부터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그런데 보호기준이 모호해 일부는 **근로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 많은 지원을 받아 오히려 역차별이 우려**되기도 함. 객관적으로 판단해 진정 기초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되어야 할 것임.<유영조, 강원 영월>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